

##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5주년 축하 메시지

존경하는 김대중 전 대통령님,

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,

저는 지금 ASEAN+3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팔라룸푸르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. 멀리서나마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노벨평화상 수상 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

우리 모두가 아는 대로 김대중 전 대통령님은 평생을 민주주의와 인권, 그리고 남북 화해·협력을 위해 헌신해 오셨습니다. 온갖 핍박과 감옥살이, 심지어 죽음의 공포도 그 숭고한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는 못했습니다. 그리고 마침내 세계는 21세기 첫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김대중 전 대통령님을 택했습니다.

저는 김 전 대통령님의 노벨평화상 수상이야말로 개인의 영광을 넘어 전 세계 인이 우리 국민에게 보내는 존경과 찬사이자,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역사의 진리를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

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님께서 일생 동안 추구해 온 가치와 노력들이 결실을 맺

고 있습니다.

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당당한 민주주의 나라입니다. 경제 또한 국민의 정부에서 닦아 놓은 지식정보화와 시장개혁의 토대 위에서 선진경제를 향해 한 발 한 발 전진해 가고 있습니다. 특히 남북관계는 이제 누구도 화해와 협력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을 만큼 안정적으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. 올해 북한을 다녀온 우리 국민이 10만여 명에 이르고, 남북 간 교역규모도 1조 원을 넘어서게 됩니다. 개성공단과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건설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.

저는 확신합니다. 역사는 민주주의와 평화를 향한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열정과 공헌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.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 시대를 열고, 한반도 평화와 남북 공동번영의 초석을 놓은 지도자로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.

존경하는 김대중 전 대통령님,

얼마 전 건강이 좋지 못하다는 소식에 걱정이 컸습니다. 이제는 쾌차하셨다니 다소 안심이 됩니다. 앞으로도 더욱 건강하신 모습으로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 더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다시 한번 노벨상 수상 5주년을 축하드리며, 김 전 대통령님 내외분의 건강과 왕성한 활동을 기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